

광주시, 학술연구 '용역 남발' 도마 위

내년 학술용역 47건 69억, 3년전보다 건수 67%·32억 ↑ '선 예산 편성·후 용역 심의' 순서 뒤바뀐 사례만 15건 적정성-타당성-부실 관리 논란...“디지털 아카이브 필요”

광주시의 학술연구 용역비가 크게 늘면서 '용역 남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용역이 수두룩하고 사후평가와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5조5769억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용역 남발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주시 발주 학술연구 용역비는 47건에 69억2500만원에 이른다. 2016년에 비하면 액수는 2.5배, 건수는 1.6배(67%) 증가했다. 액수만 놓고 보면 41억5700만원 늘었다. 2017년에 비해서도 액수는 31억9500만원 늘어 1.8배 증가했고 건수도 18건, 비율로는 65% 급증했다.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으로는 중대 하자를 안고 있다. 47건 중 15건(32%)이 조례상 명시된 관련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상정됐다.

실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필요예산 2억3300만원을 먼저 제출한 다음 용역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는 지난 달 14일 뒤늦게 이뤄졌다. 군공항 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5억원),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 조사 용역(2억원),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2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추진 부서장은 용역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예산 부서에 용역비 편성을 요구토록 명시돼 있다.

검토보고서는 "표면적으로 일정 조정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로 용역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심의에 나선 일부 의원도 "조례는 광주시의 법으로 행정기관이 법을 지켜야지 행정편의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선(先) 예산 편성, 후(後) 용역 심의' 관행을 지적했다.

용역 발주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굳이 혈세를 들여가며 외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행정 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매년 용역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은 없는지,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지

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후 평가와 관리의 경우도 조례상 용역 후 1개월 내 자체 평가 후 심의위원회 의무 보고, 위원회 평가 검토 후 시 홈페이지 공개의무, 6개월 이내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등이 명시돼 있으나 제대

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반영 여부에 대한 체크도 흐지부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예결위 판단이다.

예결위 이진 전문위원은 "광주시 학술용역이 매년 50건 이상이고 출자출연기관 자체 연구와 각종 학술 용역, 광주전남연구원의 보고서까지 다양한 연구결과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관리와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성과물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은홍 기자



크리스마스의 계절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로비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합창 행사'에서 서울외국인 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다.

전남 도로 결빙구간서 교통사고 잇따라

눈·비로 형성된 도로 위 '블랙아이스' 때문인 듯

광주와 전남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생긴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1일 전남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화순군 화순읍 대리 능주방면 고가도로에서 SUV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31·여)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고가도로 위 결빙 구간에서 난 사고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 7시50분께에는 장흥군 장동면 영암~순천 고속도로 장동2터널 인근 영암방향 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B(51)씨 등 4명이 가

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t트럭이 5t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승용차·SUV 등 차량 15대가 5차례에 걸쳐 잇따라 추돌하며 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교량 구간에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들이 미끄러져 난 사고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26분께에는 화순군 화순읍 너릿재 터널 인근 화순방면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C(13)양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새벽 사이 내린 진눈개비로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차량들

이 잇따라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블랙아이스는 눈이 녹아 도로에 스며들었던 물기가 반사 열면서 부피가 팽창해 도로를 얇은 얼음막으로 뒤덮는 현상이다.

블랙아이스가 낀 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최대 14배, 눈길보다 6배가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전남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각각 2건, 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1~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가운데 비와 눈이 함께 내리면서 결빙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통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어선서 동료선원 흉기 위협·폭행 50대 구속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동료선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상해·폭행)로 통발어선 H호 선원 A(52)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목포시 북항 선착장 앞 해상에서 정박해 있던 H호에서 동료선원 3명과 함께 술을 먹다 B(45)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 조선소서 선박해체 작업 중 폐유 유출

영광군의 한 조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작업에 나섰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께 영광군 M조선소 도크에서 선박해체 작업 중 중질성 폐유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도크 내에 있는 기름이 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오일펜스 320m를 설치하고 유출차량 160kg, 유회수기 2대를 동원해 방제 작업 중이며, 정확한 기름유출량은 확인 중에 있다.

현장에는 해경 방제과 직원과 기동방제팀 등 14명, 해양환경공단 등 8명, 방제업체, 영광군청 공무원, 주민 등이 동원돼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선체를 인양하던 중 갑자기 폐유가 유출됐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방제 작업 완료 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옛 애인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영장

경기 안양민청경찰서는 옛 애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김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옛 애인인 이모(41)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차량에 치여 쓰러지자 이씨를 차로 지나친 뒤 도주했다.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범행 1시간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3년 동안 만났던 이씨가 6개월 전 헤어지고 나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남성 구속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고모(50)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5분께 제주시 오현길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고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7%로 만취 상태였다.

고씨는 지난 5월4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서 여고 교사 숨진 채 발견

여고생 성희롱·차별 문제로 경찰에 고발된 현직 고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대전지역 모 사립여고 A(42)교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교사의 상의가 이 아파트 19층에서 발견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으로 보아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